



## 사우디아라비아

### I. 일반개황

면적	2,150천 Km <sup>2</sup>	G D P	2,506억 달러(2004년)
인구	23.9백만 명(2004년)	1인당 GDP	10,484달러(2004년)
정치체제	왕정(정교일치)	통화단위	Saudi Riyal
대외정책	친서방	환율(달러당)	3.75 (2004년)

- 원유(확인매장량 2,618억 배럴)와 천연가스(확인매장량 6조 7,500억 m<sup>3</sup>)가 전세계 매장량의 각각 23%와 5%를 차지하는 석유자원 부국임.
- 석유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은 구조적 취약점이나, 최근 국제유가의 기록적인 강세에 힘입어 경제성장, 물가, 대외거래 등 경제 전반이 호조를 지속하고 있음
- 금년 8월 왕위를 계승한 Abdullah 국왕은 전통적인 친미관계를 지속하고 신중한 정치·경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서민층의 빈곤타파, 고용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됨.

### II. 경제 동향

#### 1. 국내경제 동향

〈표 1〉

주요 국내경제지표

단위: %

구분	2001	2002	2003	2004e	2005f
경제성장률	1.3	1.1	7.2	5.2	6.2
재정수지/GDP	-3.9	-7.6	4.5	10.4	20.2
소비자물가상승률	-1.1	0.2	0.6	0.5	0.6

자료: EIU, Country Report, 각호.

- 안정적 경제성장 유지 : 최근 국제원유가 지속적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하여 민간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비 석유부문의 외국인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2005년 경제성장률은 전년보다 높은 6.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재정수지 흑자확대 : 최근 국제원유가 강세, 산유량 증가, 비 석유부문의 수입증대 등에 힘입어 재정수입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재정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래 지속되고 있는 재정수지의 흑자확대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소비자물가 안정세 유지 : 보조금 지급이 계속됨에 따라 미 달러화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간 1% 이내로 안정을 유지할 전망이다.

## 2. 경제정책 및 구조

- 석유·가스산업이 경제를 주도(GDP의 약 42.6%, 재정수입의 75%, 수출수입의 85%)하고 있음. 제조업도 석유와 관련된 석유화학산업이 주축이 되고 있으며 원유 수입이 농업, 철강, 건설, 화학 등 여타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
- 2004년도 GDP의 산업별 구성은 석유·가스산업 42.6%, 서비스업 8.38%, 제조업 5.5%, 농업 4.0% 등임. 2004년 기준으로 미국이 최대 수출상대국(18.5%)인 동시에 최대 수입상대국(9.3%)임.
- 제8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05~10년)은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민간부문의 활성화, 인프라/교육/보건 부문의 시설확대 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정부는 최근 국제원유가의 강세를 계기로 석유일변도의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비 석유부문을 중심으로 신중한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공공부문이 주도하여 왔던 경제구조를 민간부문 위주로 개편하기 위하여 자본시장의 개편,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등과 아울러 천연가스, 정유, 석유화학, 발전, 용수, 통신 등 부문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만, 기득권층의 정치적, 구조적 저항의 극복이 과제임.
- 사우디는 2005년 9월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05년 12월에는 WTO의 149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하게 됨에 따라 대외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

### 3. 대외거래 동향

〈표 2〉

주요 국제경제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1	2002	2003	2004e	2005f
경 상 수 지	9,353	11,873	28,048	51,488	79,200
경 상 수 지/G D P	5.1	6.3	13.2	20.6	27.0
상 품 수 지	39,366	42,840	59,376	85,222	115,500
수 출	67,973	72,464	93,244	126,063	160,400
수 입	28,607	29,624	33,868	40,841	44,900
외 환 보 유 액	14,796	16,715	17,662	23,273	30,291
총 외 채 잔 액	27,360	23,380	24,960	28,500	30,000
총 외 채 잔 액/G D P	14.7	112.4	11.7	11.5	10.5
D. S. R.	4.1	3.4	2.5	2.0	1.8

자료: EIU, *Country Report*, 각호.

- 경상수지 흑자확대 : 경상수지는 국방 관련 수입증가, 외국인투자의 해외송금 증가 등에도 불구하고 상품수지 흑자의 급증에 힘입어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흑자 폭도 크게 확대되고 있음.
- 수출 대폭 증가 : 2005년에는 국제유가의 강세와 산유량 증가에 힘입어 수출이 사상 최대 수준인 1,6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수입은 최근 연 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상품수지 흑자는 1,100억 달러를 상회할 전망이다.
- 외채 안정적 수준 유지 : 총외채규모가 2002년 이래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GDP의 약 10% 수준이며 D.S.R.도 약 2%인 반면, 외환보유액 등 상환능력이 풍부하여 외채 상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음.

### Ⅲ. 정치·사회 동향

#### 1. Abdullah 신임 국왕 취임

- 23년간 사우디를 통치하던 Fahd 국왕이 금년 8월 사망하고, 왕세제인 Abdullah가 새 국왕으로 취임하였음.

- Abdullah 신임 국왕은 Fahd 국왕이 뇌졸중으로 건강이 악화된 1995년 이래 왕실 내 부패척결과 외국인투자법 제정 등 주요 정치, 경제 현안을 처리하는 등 국정 전반에서 사실상 최고 권력을 행사하여 왔으며, 왕족과 군대, 성직자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아 즉위 과정에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음.
- 그러나 1982년 새로운 왕위계승법 도입으로 왕권승계 범위가 종래의 형제에서 손자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새 국왕(81세)과 왕세자(77세)가 고령임을 감안할 때 향후 차기 왕위를 둘러싸고 왕족 내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2. 체제 안정 유지

- Abdullah 국왕은 절대 권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점진적 정치·경제 개혁 시도에 대해 왕족을 비롯한 보수 기득권층의 반발이 우려되나 체제를 위협할 수준에는 이르지 못할 전망이다.
- 정부는 극단 회교원리주의자 색출, 선거를 통한 지방의회의원 선출 등 체제 수호에 노력하고 있어 내전·내란의 발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3. 실업문제 해결 필요

- 최근 국민들의 생활수준 저하, 왕족과 서민의 빈부격차 심화, 청년을 중심으로 한 실업률 상승, 젊은 왕족들의 증가 등이 사회 안정에 잠재적 위협요소로 평가되고 있음.
- 신임 국왕은 빈곤타파와 고용증대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안정이 위협받을 정도의 사회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4. 미국과 원만한 관계 유지

- 요르단, 팔레스타인과는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래 사우디가 미국에 협조하면서 관계가 소원하였으나, 2000년 긴급 아랍정상회담에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대규모 경제 지원 결정에 사우디가 기여함으로써 회복되고 있음.
- 시리아와는 금년 2월 사우디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레바논의 전 총리 Hariri의 암살사건에 시리아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됨에 따라,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하여 시리아에게 레바논에서 철군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 이라크와는 1990~91년 걸프 전쟁으로 관계가 악화되었으나 최근 후세인 몰락 이후 출범한 신정부에 대하여 정치, 경제 관계의 재개를 모색하고 있음.
- 이란과는 1997년 이란 하타미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이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최근 이란이 강경보수와 정권의 출범 이후 미국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관계가 악화되고 있으며, 시아파 이슬람교도가 주축을 이루는 이란과 수니파가 다수인 사우디의 종교적 갈등도 상존하고 있음.
- 한편, 미국과는 정치적 개방 노력, 최측근 왕족인사의 주미대사 임명 등에 힘입어 최근 관계가 개선되고 있으나 미국의 9·11 테러와 최근 이라크 폭탄테러에 사우디인의 연루 등으로 인한 어려움은 남아있음.

## IV. 국제신인도 및 대외지급능력

### 1. 국제신인도

- 2005년 11월 Moody's는 사우디의 국제신용등급을 Baa2(2003. 8)에서 A3로 2단계 상향 조정하였음. 등급 상승의 주요 요인은 석유수출수입 급증, 구조조정에 따른 국제신인도 개선, 정부의 적극적인 WTO 가입 추진, 안정적 왕위계승 등임.
- S&P : A(2003. 7), Fitch : A(2004. 11)

### 2.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등급

- I.C.R.G : 30/140 (2004. 10) → 23/140 (2005. 9)
- I.I : 55/173 (2004. 9) → 53/173 (2005. 3)
- Euromoney : 44/185 (2004. 9) → 44/185 (2005. 9)
- OECD : 3등급 (2004. 10) → 2등급 (2005. 10)

### 3. 주요 ECA의 인수태도

- US EXIM : 전액 인수 가능
- ECGD : 전액 인수 가능
- HERMES : 단기 전액 인수

#### 4. 대외지급능력 및 국제사회의 지원 동향

- 외채 리스케줄링 사례 없음. 1992년에 걸프 전쟁으로 인하여 사우디 정부가 45억 달러를 해외에서 차입하는 등 한 때 외채상환능력이 의문시된 바 있으나, 정부는 1994년 27억 달러, 1995년 18억 달러의 외채 원리금을 당초 계획대로 상환한 바 있음.
- 외환보유액은 2004년 말 현재 233억 달러(수입 약 4개월 분) 수준임. 그러나 중앙은행이 보유한 순대외자산(net foreign asset) 규모가 2004년 말 현재 865억 달러로 알려지고 있는 등 외채지급능력에는 문제가 없음.

#### V. 종합 의견

-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서 최근 국제원유가격의 강세 지속에 힘입어 제반 경제지표가 양호함.
- 석유산업 일변도의 경제구조, 국방과 보조금 지급 등을 위한 재정지출 부담 등 구조적 취약점이 있으나, 원유수출수입 증가로 인한 대외부문의 호조로 외채상환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됨.
- 다만, 신임 Abdullah 국왕이 고령으로서 대외적으로 최근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는 대미 관계와 걸프 지역 내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국내적으로 서민경제의 불안해소를 위해 점진적인 정치·경제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기득권층의 반발과 종교적 갈등 등을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
- 종합적으로 신임 국왕의 즉위 이후 정치·사회적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국제원유가격의 기록적 상승으로 경제부문이 크게 개선되었음.

【고 회 원】